

농림축산식품부

민관합동, 구제역·AI 가축방역실태  
특별점검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이동필)는 6.22일부터 7.17일까지(4주간) 중앙 및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학계, 현장수의사, 생산자단체, 농협 및 방역본부 등 민관합동으로 73개반, 292명(4인 1조)을 구성하여 구제역 및 AI 발생농장, 도축장 및 전통시장 등 665개소\*에 대한 가축방역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발생농장 347호(구제역 185, AI 162), 도축장 131개소, 전통시장 187개소

이번 특별점검은 점검 대상별 점검표(CHECK-LIST)를 활용한 방역조치 적정 이행여부, 유입요인 등 분석을 통해 재발방지를 위한 선제적 차단방역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및 긴급 방역체계를 민간 및 상시 방역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실시한다.

\* 구제역 이동제한 해제(5.22)에 따라 농가의 방역의식 및 차단방역 활동 저하를 방지하고, AI 발생 장기화로 인해 미흡할 수 있는 농가 자율방역 체계 강화

또한, 중점적으로 방역관리가 필요한 농가에 대해서는 선별기준을 마련하고,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과도 연계하여 검사·예찰·점검체계를 재정비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 AI 방역관리지구는 11개 시·도, 33개 시·군, 132개 읍·면, 약 1,700농가, 35백만 수 추정

농장별 축사규모, 소독시설,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 방역에 필요한 기초통계 자료를 확보하여 KAHIS를 현행화 하고, 이를 향후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기능 개편과 연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AI) 가축방역실태 특별점검 뿐만 아니라 농가별 발생원인 분석, 방역취약사항 등을 평가하여 특별대책 기간(15.10월) 이전에 맞춤형 차단방역이 적용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가로 축사유형(무창/유창), 방역시설(울타리, 전실 등), 구제역 백신 접종, KAHIS 및 GPS 등록 여부, 허가제 준수, 농가 방역의식 등 종합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발생가능는 축사 및 방역시설, 농가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면담조사를 병행하고, 도축장 및 전통시장은 위생관리, 운반차량 등 시설위주로 점검하는 한편, 민간전문가를 활용하여 농가의 차단방역에 대한 지도·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점검 결과에 따라 차단방역 시설 등이 미흡한 농가는 축사시설현대화 등을 지원하고, 의식부족 농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구제역 및 AI 방역체계 개선방안' 세부 실행계획 추진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8월과 9월 중에 구제역 및 AI 재발방지를 위한 농가별 지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민간(농가, 계열업체 등) 자율적인 방역체계가 조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특별점검으로 개별농장, 도축장, 전통시장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발생농장 중심의 철저한 사후관리 및 농가별 유해요소 분석을 통한 바이러스 유입 차단으로 구제역 및 AI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계열화업체, 도축장 등 관련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 가축질병분야 해외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이동필)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AI·구제역 등 가축질병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방역대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6월 9일(화) 서울 서초구 소재 The-K Hotel(구,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가축질병분야 해외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

“가축질병 위기관리 정책 및 전망”과 “가축질병 보상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이란 주제로 국내 및 해외 초청 전문가의 강연이 있었으며, 농식품부지자체검역본부 및 축산관련 기관·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가축질병이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국민적 관심이 높아 방역정책 수립 시 좀 더 폭 넓은 접근 방식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외국의 우수사례와 기존의 수의학적 접근에 사회과학적(특히, 경제학) 방식을 접목하는 새로운 방식을 소개하고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가축질병관리가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기존의 수의학적 접근에 경제학적 접근을 접목한다면 좀 더 효과적인 정책수립이 가능하다는 새로운 접근방식을 제시한 바 있다.

세션 1에서는 「가축질병 위기관리 정책 및 전망」이라는 주제로 해외 연자뿐만 아니라 농식품부 오순민 방역총괄과장이 ① 『국내 가축질병 발생

및 방역대책 추진현황을 발표하고, 가축질병분야의 해외 전문가로부터 ② 『가축질병 예방 및 방역정책에 관한 모범사례(Dr. Brian Evans, OIE 부사무총장)』, ③ 『가축질병 발생에 대한 위기관리 정책(Dr. Frank Van Tongeren, OECD 농업통상과장)』에 대해 발표했다.

세션 2에서는 「가축질병 보상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④ 『가축질병 발생 시 보상비용 공유제도(Dr. Frank Alleweddt, OECD 관련 민간 전문컨설턴트)』, ⑤ 『보상비용에 대한 정부와 민간기관의 상호 협력관계 방안(Dr. Jonathan Taylor, 호주 농업부 과장)』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시간을 가졌다.

농식품부는 이번 세미나가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등이 협력하여 회원국들의 효율적인 가축질병 관리시스템의 발전방향을 논의해오고 있는 과정에서 두 국제기구와 방역 선진국의 전문가를 처음으로 초청하여 방역 선진국의 경험을 직접 교류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고, 현재 추진 중인 국내 방역대책 등 모든 정보를 공개공유하고 토론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이번 세미나가 경제적 인센티브(살처분 보상금 등)에 대한 논의는 국제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방역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큰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라고 기대를 모았다.

농식품부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가축질병에 대한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가축 방역분야에 경제학적 방식을 접목한 효과적인 방역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외국의 우수사례 중 국내 방역정책 설정에 적합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마련 중인 『구제

역 방역대책 개선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농림축산검역본부

도축장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민·관 합동 세미나 개최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주이석)는 5월 28일 (목) 안양소재 농림축산검역본부 대강당에서 생산단계 축산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도축장 영업자, 관련 협회, 소비자단체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도축장 위생관리 및 HACCP 운용수준 향상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지난해 「도축장 위생관리 실태 점검 및 HACCP운용수준 평가」결과, 우수업체 4개 업체의 HACCP 운용 및 식육부산물 위생관리 사례 발표와 소비자 단체의 특강(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한 도축장 위생관리) 그리고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도축장 식육부산물 매뉴얼 설명 등이 있었다.

\* 우수사례 발표업체 : (주)영남엘피씨, 화정식품, (주)올품, (주)동우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관은 “이번 세미나가 도축장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한 계기가 되었다”고 밝히면서, “세미나에서 건의된 업체 의견은 향후 도축장 HACCP 운용 적정성 평가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할랄 허위표시 축산물  
집중 단속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6월 8일부터 6월 18일까지 축산물에 할랄인증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에 할랄 표시를 하고 있는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을 받지 않은 국내 또는 수입 축산물에 거짓으로 할랄 인증 표시를 하는 행위를 중점 점검했다.

이번 단속을 통해 거짓 인증 표시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은 물론 고발 조치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국내 할랄 식품의 건전한 유통과 활성화를 위하여 할랄 인증 표시에 관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에 있다.

제외국 인증기관과 국내 민간인증기관 등이 식약처장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받은 할랄 인증의 표시·광고를 허용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6월 2일에 입법예고되었다.

참고로, 현재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인증

하는 축산물에 대해서만 그 인증 사실의 표시·광고가 허용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 가짜 할랄식품 유통 차단을 위하여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향후 할랄 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 여름철 축산물 특별점검 및 수거검사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여름철을 맞아 식중독 등 축산물로 인한 위생 사고를 예방하고 부정·불량축산물 유통·판매에 따른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6월 15일부터 7월 10일까지 특별 위생점검과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전통시장의 닭·오리 판매점, 우유류판매업, 축산물가공업 등 축산물영업장 1,130개소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냉장·냉동축산물을 적정온도에 보관·운반·진열 여부 ▲영업장의 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 ▲유통·판매 닭·오리고기 포장 여부 ▲운반하는 식육의 위생적인 취급 여부 등이다.

또한, 미생물 오염이나 부패·변질된 축산물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즉시 섭취가 가능한 햄·소시지, 아이스크림 등을 대상으로 수거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으로 식중독 등 축산물 위생

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안심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농촌진흥청

#### 여름 고온기 축사 관리 요령 안내

농촌진흥청(이양호 청장)은 여름철 가축의 고온 스트레스를 예방할 수 있는 축사 관리 요령을 소개하고 피해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우리나라는 여름철 가축의 상한 임계온도인 27℃~30℃ 이상의 고온이 지속된다. 이런 환경에서는 가축 체온이 오르고 물을 마시는 양도 늘어난다. 반면, 사료섭취량은 줄어 결과적으로 증체량(체중증가량)이 줄고 번식 장애가 나타나며 심할 경우 폐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가축의 체감 온도를 효과적으로 낮추려면 환기팬이나 송풍팬을 이용해 축사 내 공기 흐름을 빠르게 한다. 개방형 축사의 경우 창문이나 윈치커튼을 열어주는 것만으로 온도를 낮출 수 있다.

외부에 있는 외양간(우사)은 축사 면적 50㎡당 1대 이상의 송풍팬을 축사 바닥에서 3m~4m 높이에 45° 방향으로 설치하고 풍속은 초당 1m 이상 확보하는 것이 좋다. 또, 운동장이나 축사에 차광막 등 그늘막을 설치할 때도 송풍팬과 함께 사용하면 효과적이다.

강제 환기로 온도조절을 할 수 있는 무창축사는 입기·배기 팬이 잘 작동하는지 미리 점검한

다. 체감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풍속이 초속 2m~3m 정도가 되도록 한다.

안개 분무 등을 이용해 미세입자의 물을 뿌려주면 가축의 체표면과 축사 내 온도 감소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축사 내 습도가 높아지고 폐수량이 느는 단점이 있으므로 송풍팬 또는 환기팬과 함께 사용해 습도가 오르지 않도록 한다.

냉수 공급은 가축의 열 스트레스를 낮춰주고 사료섭취량이 줄어드는 것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므로 시설을 미리 점검해 둔다.

각 축종별 고온 스트레스 저감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lib.rda.go.kr)에서 국립축산과학원이 발간한 ‘폭염을 이겨내기 위한 고온기 가축 및 축사관리 기술서(2010)’를 검색하면 다시 읽기가 가능하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최동윤 축산환경과장은 “여름철 가축피해는 고온 저감 시설만으로도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축사 형태와 여건에 맞는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축산물 안전관리통합인증제, 가시적 성과 드러나

농장에서 식탁까지 축산물이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HACCP 인증을 받음으로써,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안전관리통합인증제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인증원, 원장 김진만)은 5월말 현재, 안전관리통합인증(이하 통합인증)을 받은 브랜드 업체가 5개소, 통합인증을 받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MOU를 체결한 업체가 22개소에 이른다고 밝혔다.

통합인증을 받은 5개 브랜드는 지난 해 7월 강원 평창·영월·정선축협외의 ‘대관령한우(소고기)’가 1호로 인증된데 이어, 대형유통분야의 현대백화점(현대그린푸드), 진생원인삼포크(돼지고기), 계림농장(계란), 그리고 최근에 인증받은 하림(닭고기)이다.

통합인증을 받은 5개 브랜드는 인증을 받기 전부터 인증원과 MOU를 체결하고, 현장 컨설팅 등 다양한 기술지원을 받음으로써 생산부터 최종 소비단계까지의 위생안전성을 통합 관리하는 인증 획득에 성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인증을 도입한 지(2014.1.31)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한우, 돼지, 닭, 계란 등 대부분의 축종(업종)과 전국적인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브랜드 경영체가 참여하는 등 통합인증 제도가 서서히 정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통합인증 1호인 강원 평창·영월·정선축협외의 ‘대관령한우’를 대상으로 6월초 실시한 조사평가 결과,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농장과 식육판매업소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인증 전·후 대관령한우의 HACCP인증 업소수를 비교해 보면, 농장은 14개소가 늘어나 29%가 증가(48개소→62개소)했고, 가공유통업소는 4개소에서 10개소로 증가하는 등 대관령한우 브랜드의 주요 단계별 HACCP 인증률이 올라갔다. 또한 통합인증 후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져 월평균 매출액도 40% 정도가 증가했다.

전 예정 심사기획팀장은 “안전관리통합인증을

받은 업체 중 일부는 HACCP 인증업소 수가 늘어나고 학교 급식 납품 증가, 매출 증대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인증원은 금년 10개 브랜드에 안전관리통합인증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참여를 원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지원 등을 통해 인증업체를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 축산물 HACCP 특별 세미나 개최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인증원)은 지난 6월 초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국제학술대회에서 한국식품과학회와 공동으로 축산물 HACCP 특별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축산물 HACCP와 안전관리(HACCP for Livestock Products & Safety Management System)」를 주제로 인증원 관계자들과 전국 주요 축산대학 대학원생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물 안전관리 발전 방향 모색 및 전문 학술정보 공유로 축산업 발전방안을 강구하고자 마련되었다.

발표는 김성일 사무관(식약처 축산물위생안전과)의 ‘축산물 HACCP 정책방향’을 시작으로 건국대학교 서건호 교수, 한국소비자원의 홍준배 연구위원, 인증원 백승희 연구분석실장 등 4명이 각각의 주제발표에 이어, 참석자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하는 등 토의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주제발표자들은 축산물 HACCP와 관련된 주요 연구성과와 현장 관리방안 등을 각 기관 및 대학의 입장에서 제시하였으며, 특히 서건호 교수는 ‘중소규모 젓소농장과 유가공장 HACCP인증 확대방안’을 제시해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인증원의 라정한 심사1처장은 “이번 세미나가 축산물 HACCP이 한층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축산물 전문가들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HACCP발전 및 위생·안전관리를 향상하는데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에서 김진만 원장은 한국식품과학회 영문지인 Food Science and Biotechnology에 게재한 논문이 ‘FSB의 인용지수 상승과 국제화’에 크게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 한국식품과학회로부터 「2015년 우수피인용논문상」을 수상하였다.

\* ‘우수피인용논문상’은 한국식품과학회에서 발간하는 영문학회지인 Food Science and Biotechnology(SCIE)에 게재된 논문 중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이 인용되어 학회의 학문적 발전과 국제화에 기여한 논문에 대하여 시상하는 상이다.

### 축산물품질평가원

#### 몽골 축산공무원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역량강화’ 국제협력연수 실시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허영, 이하 ‘축평원’)은 지난 5월 11일부터 23일까지 몽골 축산공무원



15명을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역량강화’ 국제 협력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교육 연수는 몽골 측이 제6차 한·몽골 농업협력위원회에서 논의했던 축평원 ‘축산물이력제 역량 강화’ 연수과정을 요청함에 따라 몽골 축산업 선진화 지원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연수 과정은 축산물이력제도를 중심으로 실시됐으며, 국내 축산정책에 대한 강의와 몽골 축산업 발전을 위한 액션플랜 수립 등을 주축으로 진행됐다.

이와 더불어 연수 참가자들은 포스코, 경주 문화유적지 등을 견학하며 한국의 산업과 문화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도 가졌다.

몽골 연수단의 단장인 알탄게렐 야마란즈(Altangerel Yamaaranz) 몽골 농림부 축산정책실협력부 서기관은 “이번 연수는 몽골 공무원들이 선진화된 한국의 축산물 이력제를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축평원은 이번 연수과정을 이후로도 양국의 축산업이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하는 한편, 국내 축산업의 해외진출 등을 모색하며 국내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 쏟을 예정이다.

### 축산물품질평가원

eKAPEpia 축산뉴스  
실시간 제공 서비스 오픈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허영, 이하 ‘축평원’)은 운영하고 있는 eKAPEpia(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에 각 축산전문지의 최신 기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축산뉴스’ 서비스를 5월 26일 오픈했다.

eKAPEpia는 축산유통, 가격, 축산물등급, 원산지, 요리법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이트다.

‘축산뉴스’ 서비스는 eKAPEpia 홈페이지(www.ekapepia.com, m.ekapepia.com)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축산유통’으로 검색해 앱을 설치하면 메인 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

축평원은 향후 더 많은 축산전문지와의 기사제공 제휴를 통해 축산뉴스 서비스를 확대해 제공할 예정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 허영 원장은 “일일 1만 7,000여 명이 방문할 정도로 활성화된 eKAPEpia에 축산기사가 공유됨으로써 축산업계 종사자의 업계 관심도가 더욱 높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동남아 시장 공략을 위한  
하노이지사 개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는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우리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하여 베트남에 하노이지사를 설치하고 5월 29일 11시(현지 시각)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번 개소식에는 황(Dr. Quang) 베트남 농업과 학기술원장, 밍(Minh) 농촌개발부 국장, 고상구 베트남 한인회장, 배종하 FAO 대표, 박낙종 주 베트남 한국문화원장 등 다수가 참석했다.

동남아시아는 '14년도 국가전체 농림수산물 수출액인 82.5억불의 16%인 13.3억불을 차지하는 거대시장이며, 특히 對베트남 수출액은 4.3억불로 한국 농림수산물 수출 4위 국가에 해당된다. 또한 베트남은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신선 농식품의 주요 수출시장이며 인구 9천만 명 이상의 인구대국으로 규모화 된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이외에도 베트남은 지리적으로도 인도차이나 반도의 관문으로 인근 국가로의 수출확대 파급효과가 기대가 되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김재수 aT 사장은 “베트남은 우리나라가 타결한 15번째 FTA국가로서 최근 3개년 농림수산물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13.4%일 정도로 성장률이 높은 매력적인 시장이다. 오늘 개소한 하노이지사가 對베트남 및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우리 농식품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회장 최원병)와 쿠팡(대표 김범석)은 6월 19일 농협중앙회 본관 3층 멀티미디어강의실에서 이상욱 농업경제대표이사와 김범석 쿠팡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농산물 판매 확대 및 창조경제적 농산물 유통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날 양 사는 농산물 등 공급 및 판매 촉진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고, ▲쿠팡은 농협을 통해 농산물 등의 매입 및 판매, 상생마케팅에 적극 참여, ▲농협중앙회는 양질의 우리 농산물 등을 쿠팡에 공급하고, 판매 확대를 위해 상호협력체계 구축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농협은 이커머스 기업 쿠팡과의 제휴를 통해 농협에서 운영 중인 우리 농산물 전문 종합쇼핑몰인 농협a마켓과 농산물 판매 확대 및 창조경제적 농산물 유통혁신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농협중앙회 이상욱 농업경제대표이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 사의 전략적 업무제휴를 통해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 및 유통혁신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시너지 효과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쿠팡 김범석 대표이사는 “국내 농식품 최고기관인 농협중앙회와의 협력을 계기로 쿠팡은 신선하고 우수한 각종 농산물 등을 로켓배송으로 빠르고 친절하게 고객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고객은 질 좋은 제품을 빠르고 친절한 배송으로 받음으로서 좀 더 편리한 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된 것이다. 양사는 앞으로도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 농협중앙회

쿠팡과 우리 농산물 공급  
업무협약 체결